

주가지수	환율	금리
-3.43	-2.50	-0.02
1,410.30 (코스피지수)	914.00원 (원/달러)	4.71%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4.43	(-0.56)
다우(6일)	12,309.25	(-22.35)
나스닥(6일)	2,445.86	(-6.52)
닛케이	16,473.36	(-6.5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90엔	(-0.15)
유로 달러 환율	1.3302달러	(+0.09)
3년만기 회사채	5.07%	(-0.01)
클레리	4.49%	(보합)

### “성실납세자 혜택드립니다”

국세청, 신보금증보 증대 등 우대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7일 세부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으며 자료상과 거래를 하지 않아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때 조달청 정부물품구매 입찰을 할 때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를 할 때 보증한도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인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성실납세자가 조달청 주관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받을 때 신인도 부문에서 점수 10%를 더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부 조사를 유예하고, 납세담보를 세액 2억원 한도내에서 2년간 면제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토록 하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 서구에 ‘쌍용 예가’ 336가구 분양

쌍용건설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쌍용 예가’아파트를 분양한다. 지상 15층, 7개동 규모로 들어서는 ‘쌍용 예가’는 336가구의 중형단지로서 41~54평형까지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770만~820만원이며, 계약금 5%에 총 분양가의 60%까지 이차후불제 대출이 적용된다. 단지 인근에 상무·금호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제2순환도로 연결도로,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 등이 가깝다. 입주하는 2009년 1월 예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청약 받는다. 문의 080-036-0777.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순천대 반봉찬교수팀 ‘메카노 신기술’ 글로벌 연구과제 선정

▲메카노 케미스트리 기술=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마이크로(μm) 단위로 분쇄한 미분체에 활성화를 취 입자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공법이다.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소재’ 만든다

6년간 52억 투입 태양축전지 등 개발  
상용화하면 연간 1,500억원 매출 기대

순천대 신소재응용공학부 반봉찬 교수팀의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친환경성 가능소재 개발계획이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2006’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은 고체물질에 기계적 에너지(분쇄, 초음파, 전자조 등)를 가해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주위의 물질과 반응 결과를 기능성 소재산업 등 실생활에 응용

하는 것. 러시아 메카노케미스트리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널리 소개되지 않은 획기적인 기술이다. 반봉찬 교수팀은 52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라남도(재)전남테크노파크, 러시아 메카노케미스트리 연구소 등과 협력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POSCO 등 국내 기업 5개사와 러시아 기업

3개사도 공동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순천대와 공동으로 내년 3월께 러시아 메카노케미스트리 연구소 분원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전남지역에서도 해외공동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봉찬 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온실용 태양축전지 개발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총 6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반봉찬 교수는 이들 연구과제

가 상용화될 경우 1천500억 이상의 매출과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봉찬 교수는 “이번 연구지원과제 선정으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을 통해 3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을 전남지역에 유치해 전남이 명실상부한 기능성 소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리산 한우펀드’ 이용하세요  
전남 동부권 7개 축협이 결성한 ‘지리산 순한 한우펀드’가 7일 전국 최초로 출시됐다. 김수공 전남농협 경제부본부장과 지역 축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순천축협 직영 축산장에서 위탁사육 희망농가와 송이자 입식행사를 갖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지리산 순한 한우브랜드사업단,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월 80억원 규모의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광주·전남 청년실업 단기간 해소 불투명”

### 향후 5년 청년인구 증가·경제성장 둔화 여파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간 내 청년실업 해소는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7일 조선대MCB사업단과 광주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전남고용포럼’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핵심 연령

층인 25~29세 청년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청년의 취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2005년 실업자는 광주 2만8천명, 전남 2만1천명으로 실업률은 각각 4.3%와 2.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실업률 3.7% 보다 광주는 0.6%포인트가 높으며 전남은 1.4%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자는 광주 1만3천명,

전남 9천명으로 광주·전남 전체 실업자의 46.4%와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청년 중 실업자 비율)은 광주가 9.5%, 전남 7.8%로 광주지역은 전국 평균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실업 원인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효과 감소 ▲경력자 중심 채용관행 ▲고학력자의 급증(청년층 기대수준 상승) ▲직업교육훈련 부족으로 인한 성숙한 직업관과 근로의식의 부재 등을 꼽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 성향 분석해보니 도 아니면 모 ‘롤리코스터株’ 선호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들은 롤리코스터株(株)를 좋아해’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주를 선호하는 롤리코스터형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거래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량 상위 각각 5개 종목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의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각각 4.96%와 6.15%씩 상승한 가운데 지역 투자자들이 거래한 상위 5개 종목의 경우 유가증권 종목은 평균 4.70% 하락한 반면 코스닥 종목은 평균 30.80%나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SK증권

이 23.71% 상승한 것을 비롯해 서울증권(13.98%)과 미래산업(9.52%)은 올랐다. 그러나 홈 네트워크 전문업체인 아이브릿지는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한달동안 42.99%나 급락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인 팬택엔터테인먼트도 27.76% 떨어졌다. 코스닥 종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 운영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제이엠이아가 MS사의 ‘윈도버스타’ 출시 기대감으로 197.82%나 폭등해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안겨줬다. 이에 반해 MP3 플레이어 생산업체인 엘피오는 자회사의 부도와 최대주주의 횡령 등 악재가 겹치면서 55.68%나 폭락했고 디지털TV 및 LCD 모니터 생산업체인 이레전자는 20대 1 감자의 영향으로 50.93% 하락했다. /정필수기자 bungy@

## 농산물 광역브랜드 ‘햇뜻 애호박’ 출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7일 광양시 광양항 수출물류기지에서 선별장에서 생산농가와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햇뜻 애호박’ 출하식을 가졌다. ‘햇뜻’은 농협지역본부가 지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 브랜드로 ‘햇

은 햇’, ‘뜻’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의 뜻에 순응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농심’을 상징한다. 농협 전남본부는 고품질 청과 및 채소 농산물 생산과 체계적 마케팅을 위해 공공 브랜드 개발에 나섰고 그 이름을 사용할 첫 농산물로 광양에서 생산되는 애호박이 선정됐다. 광양지역에서 선별된 ‘햇뜻 애호박’은 앞으로 농협 도 단위 연합마케팅사업단을 통해 농협양재유통, 고양유통센터, 롯데마트 전국매장에 전량 납품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대한민국 최고의 판타지 대작이 온다!

민족 드림스타트 배우 (중편)의 연인 정우성 김태희가 광주에 온다!  
12월 21일 (목) 순천에서 개봉한다!  
www.jjangchun.com

## 정우성 김태희 허준호

12월 21일 세트로 전설이 시작된다!

www.jjangchun.com